

요 약

- 최근 정부재정의 부족과 민간의 창의성 도입으로 그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관리를 위해 책정되는 사업관리성 경비(SPC 비용, 위탁 사업관리(PM) 비용, 감리비)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.
- 현재 사업관리성 경비 산정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으며, 특히 위탁 PM비용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현행 제도에 근거가 없는 실정임.
 - SPC 비용: 위탁할 PM의 업무범위를 고려하고, 필요 기능과 업무에 따라 비용을 산정해야 하나, 현재는 직급(고직급) 중심으로 책정되어 있어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.
 - 위탁 PM 비용: 최근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제안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지만, 비용 산정의 객관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하며, 사업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작성된 것이 많고, 유사 사업간에도 그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임.
 - 감리비: 법적인 요건이며, 감리비 산출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, 예산 책정시 공구별 분할이 아닌 전체 공사비를 놓고 감리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감리용역 발주시 비용의 초과 위험이 있음.
- 민간투자사업에서 그 적용이 늘어나는 추세인 위탁 PM방식은 기존의 정부재정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PM 비용을 투입하고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. 또한 SPC가 제안한 비용의 산정근거와 논리가 부족한 관계로 실시협상단계에서 예산의 삭감과 협상 지연 등의 악영향을 초래함.
-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「민간투자법」 내에 사업관리성 경비에 관한 적절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 여기에는 사업에 따른 융통성이 확보되어야 하며, SPC가 확정된 사업계획내에서 사업관리성 경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.
- 사업관리 측면에서 감리(설계+책임)는 비용 및 관리의 이중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, 국내의 민간투자사업은 건설회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감리를 SPC와 PM의 역할분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그리고 본 고에서는 사업관리성 경비 가운데 SPC 비용과 위탁 PM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절차와 고려사항을 제안하였음. 이 방안은 SPC로 하여금 사업관리성 경비와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를 갖추게 하여 성공적인 실시협상과 각종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임.